조선중앙일보 - 1935. 06. 23/ 4면/ 1단

니-쵀 復興의 現代的 意義 (一)

安浩相

니-췌의 生涯와 哲學

푸리듸리히, 빔멜, 니-최는 一千八百四十四年 十月 十五日 獨逸 튜링겐주, 헬켄이라는 一寒村에서 浸敎 牧師의 아들로 出生하얏스니 그의 父親은 特히 音樂에 對한 沈着心과 想像力을 無限히 所有하여 何人에게나 그의 피아노의 傳受를 對比한 이가 업섯다 한다. 天才는不幸하다는 運命의 眞理인지 겨우 五歲가 되엇슬 때 니-최는 애처러이 父親을 死別하얏다. 父親을 일허버린 니-최는 情든 故鄕을 떠나 어린 누이와 同伴하야 그의 母親을 따라 그들의 親族이 居住하는 싸알-데江□에 잇는 나움□으로 移居하얏스니, 이곳에서 비로소 니-췌는 小學校를 卒業하고 다시 中學에 入學하게 되엿다. 中學時代의 니-최는 自然科學과 數學에 對하야는 가장 厭症을 感하야 卒業 當時 그의 成績은 不良하야 落第의 悲運을 겨우 免하게 되엿스나, 그러나 그 反面에 그에게는 華麗한 藝術感과 超人間的 想像力이 例人에 越等하야, 十五六歲時부터 그는 詩와 散文을 發表하야 그의 詩想과 文章은 벌서 四敵 이벗스리만치 當時人을 感動시겻다.

그의 가슴에 넘처흐르는 藝術感은 다시 그를 音樂의 世界에 놀게 하얏스니, 그는 저 有名한 樂聖 바그넬[바그너]의 作品에 熱中하얏다. 그때까지 中學을 마치지 못한 그는 大膽하게도 當時 게르마니아 音樂協會에서 作曲에 對한 講演과 特히 그 「音樂의 神秘性」이라는 熱辯으로 諸音樂家에게 無限한 驚歎을 자아내엿다. 그는 바그넬의 音樂을 硏究하는 同時에 베토펜[베토벤]의 第九 심포니를 熱心으로 硏究하얏다. 中學을 마친 니-최는 라인 江□의 본大學에서 文獻學과 神學을 硏究하다가 다시 라입치이[라이프치히]大學으로 轉學하얏다. 그의 藝術的 天才는 그가 在學時부터 未來에 偉大한 文獻學家가 되리라는 豫測을 보여주엇다.

이리하야 大學을 마친 그는 곳 스훠쓰[스위스]의 바-셀[바젤]大學으로부

터 文獻學 敎授로 任命되니 當年이 二十五歲엿다. 그 翌年 卽 一千八百七十年에 兵營에 들어가 傷兵看護員이 되엿다. 身體가 特히 虛弱한 그는 마츰내 負傷兵으로부터 虎列刺와 지푸테리病에 傳染되여 必死를 豫測하얏스나 多幸이 그의 重病은 治療되게 되엿다. 그러나 그의 心身은 極度로 衰弱하게 되어 니-최 一生의 健康이 여긔로부터 減退하게 되엇다. 衷心으로 尊敬하고 熱狂的으로 崇拜바든 바그넬과 그 外 그의 親友이든 로-데, 붕켈트, 핀孃, 만쓰롭프孃을 次次로 일허버리게 된 事實은 感受性이 敏感한 니-췌에게 向하야선 一個의 悲劇이 아닐 수 업섯스니, 生의 □寂과 心身의 衰弱함이 날이 갈사록 더하야 不得已 바-셀大學校□을 謝하고 그때부터 流浪의 生活을 始作하얏다.